

문화예술인 식전공연 관행 없앤다

전주시, 공공기관·교육청·경찰서 등 지역 내 26개 기관에 캠페인 참여 협조 공문 발송

전주시가 문화자수 1위 도시답게 각종 행사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식전공연을 없애기 위한 공감대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31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교육청, 경찰서, 대학교, 중앙행정기관 등 지역 내 26개 기관에 '전문 문화예술인 식전공연 없애기 캠페인 참여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공문을 통해 전문 문화예술인들의 자존감을 살리고 문화자수 1위 도시의 위상에 걸맞고 품격 있는 공연 관람 문화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인들이 본 행사 또는 정식공연으로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취업으로 가는 길

제14회 인크루트 2016 하반기 채용설명회가 열린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취업준비생 등 많은 구직자가 설명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들의 지위와 권리 보장 등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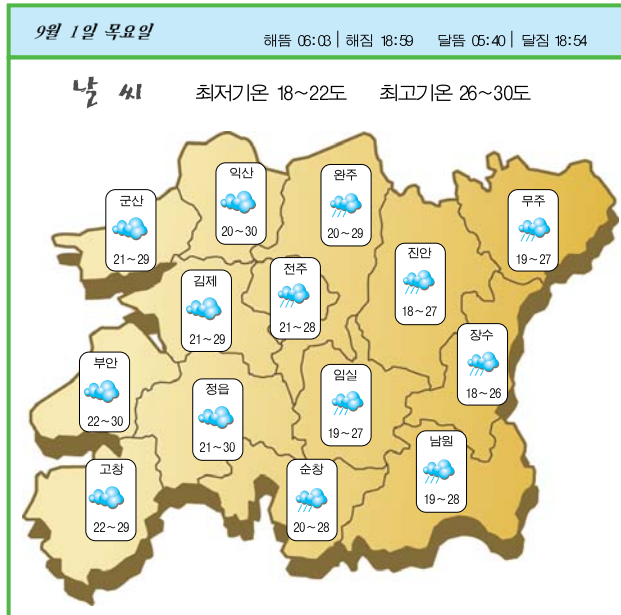
전주시 전통문화과 관계자는 "전주시와 함께 출연기관, 산하기관 등에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인

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며 "캠페인을 전개해 전문 문화예술인의 예우 강화와 품격 있는 공연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8일 간부회의에서 "전문 문화예술인들의 예우 차원에서 식전이 아닌, 본 행사

무대에서 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며 "행사와 공연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향후 관계기관 등을 상대로 문화예술인의 식전공연 없애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김영재기자



전북교육 변천·발전사 파악

전북교육청, 교육 관련 기록물 수집

1999년 이전 제작·작성 교구문서류·학교상징물 등

전북교육청은 전북교육 변천 및 발전사를 파악하고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를 위해 교육 관련 기록물을 수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수집을 통해 개인 및 단체가 소장하고 있거나 열악한 환경에 놓인 기록물에 대한 소재 정보를 파악해 전북교육의 숨겨진 역사를 발굴하고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1999년 이전에 제작·작성·촬영되거나 사용하던 자료로 박물관·교구·

문서류, 학교상징물, 사진·상장·전적류 등이 대상이다.

자료 기증은 누구나 가능하며 기증 희망자는 도교육청으로 연락하면 된다.

기증 또는 기탁된 자료를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방침이다.

또 기증자에게는 감사증 또는 감사패를 줄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수집을 통해 전북교육 역사자료의 영구적 보존과 안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수집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청소년 자원봉사 대한 존중 문화가 확산돼야"

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 "청소년 자원봉사가 노동착취 대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비판

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은 청소년 자원봉사가 노동착취의 대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형배 의원은 31일 제3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자원봉사 도시로 위상을 굳힌 전주시가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을 단순한 행정편의를 위한 대상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주시에 거주하는 65만2282명 중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17만2297명으로 자원봉사자 등록률이 26.2%에 달한다. 하지만 현실은 학교 내신 성적에 반영되는 청소년들의 자원봉사는



박형배 의원



김순정 의원



서나니 의원

한 편향된 인식부터 바로잡고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한 존중의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정 의원, "진북동 중앙 아파트 주택재개발사업 문제해결 노력을" 전주시의회 김순정은 의원은 전주시에서 진북동 중앙아파트 주택재개발사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김영재기자

군산대, 2016년 보안감사 우수기관 선정

자체내규 관리·직원 보안교육 등 우수한 평가 받아

군산대학교가 교육부가 실시한 2016년 보안감사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6월 이루어진 보안감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안제도 및 운영, 인력보안, 문서보안, 시설보안 등의 국가보안과 정보통신보안 개인정보보호, 표준API 또는 보안서버 적용실태 등의 정보보안 점

검 등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군산대학교는 자체내규 관리, 직원 보안교육, 침해사고 탐지 및 대응활동 등에서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보안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군산대학교는 9월 중 보안업무 유공자에 대한 교육부장관상 수상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고민형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근대, 추억을 만나다

군산시감여행 축제

2016.9.30 Fri ▶ 10.2 Sun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및 월명동 일원

군산시 GUNSAN CITY 시간여행문의 관광진흥과 T. 063) 454-3343 festival.gunsan.go.kr

*시간여행 드레스코드(교복·양장 등에 맞는 복장으로 행사장 방문 시 기념품을 드립니다.)